# 무엇이 염불을 방해하는가
## - 저자가 말하는 『정토불교성립론』

김호성 / 동국대 교수

참으로 뜻밖에 제12회 반야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 큰 상을 주시는 반야불교문화연구원 원장 요산지안 스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심사를 해주신 심사위원 선생님, 아울러 이 상을 후원해주시는 반야암의 여러 불자님들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에 펴낸 『정토불교성립론』(조계종출판사)를 다소 소개해 올리는 것으로 '수상강연'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1. 종학자(宗學者)의 숙명

책이 나온 뒤에야, 어쩌면 '정토불교성립론'이라는 책 제목이 독자들의 오해를 부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전에 알았다고 해서, 책제목을 바꾸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

> 아, 인도에서부터 정토사상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정토신앙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 제목은 다양한 이유에서 만들어집니다만, 저로서는 '정토불교성립론'이라는 이 말을 그냥 '말한' 것은 아닙니다. 용수보살은  대승불교의 위없이 높은 진리를 그냥 말하지 않고, '선포하여 말했다(宣說)'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 정토사상도 불교고, 정토신앙도 불교다!

이 이야기를 내걸고 싶었던 것입니다. 책의 제목을 깃발이라고 한다면, 그 깃발에 '정토불교도 불교다!'라고 써서 내걸었던 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은 "정토사상은 불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정토사상은 외도(外道)다"라고 말하며, 또 어떤 사람은 "정토신앙은 기독교와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토불교성립론』이 비판하고 극복해야 할 주장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 정토사상은 불교다. 정토신앙은 불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참으로 다양한 불교가 있습니다. 초기불교부터 선불교까지 ---. 다른 어떤 불교를 믿고 행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정토신앙을 하고 정토신앙을 권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있습니다. 바로 정토신앙을 의혹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 즉 대개는 다른 종파의 불교도들에게 맞서서 의혹을 해소하며, 비판을 극복하면서, 정토신앙을 높이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토신앙의 책들 중에는 '십의

론(十疑論)'이니, '군의론(群疑論)'이니, '결의론(決疑論)'이니 하면서 '의심할 의(疑)'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정토종을 신앙하는 종학자(宗學者)의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토종학(淨土宗學)은 기본적으로 호교론(護教論)이고, 호법론(護法論)입니다. 현대의 학문풍토에서 보면 호교론이나 호법론은 좋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호교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토종학에서는 중요한 한 영역이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비판의 대상이 된 의혹들

정토종학자들이 끊임없이 호교론적인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의혹과 왜곡에 맞닥뜨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상이나 학문의 영역에서 일어나거나 관련되는  일만은 아닙니다.

그냥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자유가 아니겠는가 하고, 관용할 수만도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염불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혹들이 존재하고 널리 퍼지는 한 염불을 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토불교성립론』에서 상정(想定)하고, 또 투쟁(鬪爭)했던 의혹들을 정리해 봅니다.

① 합리, 과학, 객관이 중시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정토신앙은 안 맞다.

② 극락정토를 말하는 『무량수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과 같은 대승경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한 경전이 아니다.

③ 서방에 있다고 하는 극락정토가 진짜로 있는지 어떻게 아는가? 극락정토는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④ 극락정토는 우리 마음이 청정하면 그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지, 마음 밖에 극락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⑤ 정토사상을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도 원효스님을 비롯해서 훌륭한 정토사상들이 많은데, 굳이 일본의 정토사상을 말할 필요는 없다.

어느 것 하나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①은 불교 외적인 측면에서이고, ②에서 ⑤는 불교 내적인 측면에서 제기된 의혹입니다. ⑤의 경우에는 정토사상을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입장인데, 일본의 정토불교를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토불교성립론』에 수록된 논문들이 이러한 다섯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답할 수 있는 순서로 편집되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 처음에 맞닥뜨리는 논문이 너무나 길고 너무나 어려운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들을 제4부로 옮겼습니다.

4부의 1장 「염불 비판의 논리와 근대정신의 투영」은 ①의 의혹에 대한 저 나름의 답변입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은 『조선불교유신론』 중에서 「염불당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단순히 그 당시의 '염불당'에 여러 문제가 있으니 폐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아미타불' 염불 자체, 아니 서방정토 극락세계 자체가 어불성설이니 염불당을 폐지하자고 말합니다. 초기불교의 합리성이나 선의 자성미타 유심정토의 입장에서 비판의 논리를 갖고 오기도 합니다만, 염불하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대하여, 인과설의 입장에서 비판합니다. "좋은 원인을 지은 자는 좋은 결과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쁜 원인을 지었는데도 불구하

고, 극락에 가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당시에는 『무량수경』 제18원의 입장에서 반론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만, 나중에 원효스님의 『무량수경종요』를 보니까, 이미 그러한 논리를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효스님께서는 이러한 의혹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량수경』에서는 '부사의지(不思議智)'가 말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부처님의 부사의지는 "부처님의 지혜(佛智)에 큰 힘이 있어서 능히 가까운 것을 멀게 하고, 먼 것은 가깝게 하며, 무거운 것은 가볍게 하며, 가벼운 것은 무겁게 한다. 비록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그렇기는 하지만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러러 믿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무량수경』 하권에 나오는 이른바 '불지의혹(佛智疑惑)'에 대한 원효스님의 부연설명입니다. 앙신(仰信)이라는 말은, 근현대의 합리주의로는 해석 불가능한 것임을 인정하고서 부처님 말씀이니 '우러러 믿자'는 것입니다. 앙신은 원효스님 만이 아니라 당나라 선도(善導)대사도 쓰는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만해스님 비판 부분에서는 제18원에 입각하기 보다는 『무량수경』 하권의 '불지의혹' 부분과 그에 대한 원효스님의 『종요』를 인용했더라면 더욱 적확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 ②번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로 이 문제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저의 동행(同行) 중에 한 거사님께서, 2018년 봄에, 제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 처음에 불교에 들어와서 염불을 좀 배우고, 했습니다. 염불을 권하는 스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에서 '대승경전은 불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고, 이후 15년 동안 염불을 놓은 채, 어디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편지'를 읽다가 그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저의 '편지'를 읽어주시고 있으며, 함께 극락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승비불설 문제에 대한 저 나름의 사색을 『천수경의 새로운 연구』에서 시작하여, 『불교해석학 연구』에서 좀 더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성에 안 찼습니다. 모든 활용가능한 논리를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심정으로, 초기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일본불교, 정토불교는 물론, 서양의 철학, 문학이론들까지 광범위하게 자료를 모으고 논리를 쌓았습니다. 그것이 제4부 제2장 「아함경과 『무량수경』의 화쟁론(和諍論)」이라는 논문입니다. 340쪽에서 408쪽까지, 68쪽이나 되는 대하(大河)논문입니다.

애당초 2010년에 『보조사상』 제34집에 발표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발표 못할 것입니다. 수록해주는 학술지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실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학계에서 '불설, 비불설' 논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논쟁에 직접 뛰어들지는 못했으나, 그러한 문제에 대한 저의 관점을 이 논문으로 정리해서 학계에 보고한 셈입니다.

발표는 했지만, 어떤 리액션도 없었습니다. 그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누가 읽겠습니까? 그런데 『정토불교성립론』을 편집할 때는 몰랐습니다만, 2015년에 『불교평론』에서 '한국불교의 10대 논쟁'이라는 주제로 특집을 마련했는데, 이홍구 박사가 「대승불교의 정체성 논쟁」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이홍구 박사의 글을 읽어보니, 제 논문이 논지전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과문한 탓에, 책에서 언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홍구 박사에게도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점을 보유(補遺)로서 말씀드려 놓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빕니다.

③의 문제는 ①의 문제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제기됩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결불가능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극락은 사후에 만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토사상사에서 보면, 대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들 시대에는 ---. 하지만, 지금은 거론될 수밖에 없

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이 안 되면,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정토신앙의 선배들 중에 나름으로 고민해서 답을 제시하는 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1부 2장 「극락의 존재여부와 염불의 가능성」입니다. 일본 정토불교의 조사 신란(親鸞)스님은 솔직히 고백합니다. "염불을 하는 것이 참으로 정토에 나아가는 씨앗이 될 것인지, 또는 지옥에 떨어질 업이 되는 것인지, 그 모두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전제를 해둡니다. 그렇지만, "아미타불의 본원이 진실하지" 않느냐 말합니다. 아미타불의 본원은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려는 염원입니다. 그 염원이 진실한데, 극락이 진짜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잇펜(一遍)스님이라는 분의 대답은 염불행자는 "지옥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버리며, 극락을 바라는 마음도 버리고" 그저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미타불의 본원에 부합한다고 말합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말로 그럴지 모른다. 극락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다면, 극락을 만들어서라도 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극락을 만들어서 가려면, 그 설계도는 아미타불의 본원에 의지하는 것 밖에 없지 않는가. 이러한 논리는 저로서는 의상스님의 『백화도량발원문』에서 배운 논리입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④의 문제는 사실 선에서 주로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토불교성립론』의 여기저기에서 간단히 논의됩니다. 만해스님을 논하면서도 해보았고, 제3부 2장 「정토신앙을 둘러싼 고뇌와 그 극복」에서도 염불선과 관련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또 「후기 : 2번째와 7번째 논문의 보충」에서도 다소는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룰 수 없었습니다. 이 책 이후의 연구 성과 하나만 소개드리도록 합니다. 금년에 「원효와 유심정토」(『한국문화』 98집)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법보신문』(2022. 8. 3)에 요약 소개된 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 신문의 기사 제목은 "원효스님은 단 한 구절도 유심정토를 설한 적 없다"였습니다. 참으로 그대로입니다.

유심정토는 그 자체로서 잘못되거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토불교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정토불교의 정의는, "『무량수경』, 『아미타경』, 그리고 『관무량수경』에서 말하는 불교이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토삼부경에서는 유심정토를 말하지 않습니다. 타방정토 극락세계만을 말합니다. 연구자가 그러한 타방정토를 믿지 않는 것은 좋지만, 타방정토를 말하는 정토불교의 맥락을 유심정토설로 덧칠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삼단논법의 논증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원효스님은 『무량수경』을 주석했습니다.
『무량수경』은 유심정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효스님은 유심정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논증식이 더 있습니다.

유심정토는 마음 밖에 극락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토삼부경은 서방, 즉 마음 밖에 극락세계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토불교는 유심정토를 말하지 않는 불교입니다.

⑤번 문제 역시 오랜 동안 저를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효스님의 정토사상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현재까지 9편 발표했습니다. 지금 10편째를 씁니다. 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4편까지만 써서 책을 내려고 합니다. 15편째 논문은 신란(親鸞)과 비교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제가 아직 신란을 다 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원효스님의 정토사상이 모든 정토불교의 사색을 다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감히 말씀드리건대, 더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원효의 해석에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다는 점입니다. 맞지만 오해를 부른 것도 있습니다. 직선으로 바로 갔으면 좋았을 것을 곡선주로를 달리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작업은 무엇보다 오해를 받아온 부분은 올바로 오해를 풀어주고, 아직 밝혀지지 못한 부분은 새롭게 밝혀내며, 틀리는 부분은 바로 잡는 것입니다. (어떤 점이 오해이고 어떤 점이 잘못인지를 지금 여기서 논할 수 없습니다. 제 논문들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미 원효는 당나라 회감(懷感)이나 운서주굉(雲棲袾宏)이나 일본 정토종의 기카이(義海)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같은 신라의 정토연구가들로부터도 그랬습니다. 실명 거론은 안 했으나, 그 학설은 비판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원효은 언제나 옳다.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불행하게도, 원효는 당나라 때 번역된 『무량수여래회』를 읽을 수 없었고, 『대아미타경』이나 『무량청정평등각경』 같은 경전을 읽지 못했던 것 것습니다. 원효가 받은 비판 중 오해는 바로잡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원효 이외의 정토사상가'의 입장까지도 함께 살피면서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효에만 붙잡혀 있어서 경흥(憬興)이나 의적(義寂)과 같은 신라스님들이 조명되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본의 정토불교에서는 원효보다 이 스님들이 더 큰 영향을 끼쳤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일본의 정토불교를 이야기하는 책 『나무아미타불』(柳宗悅/야나기 무네요시 지음, 김호성 책임 번역, 모과나무, 2017)을 만나서 정토신자가 되었고, 정토불교 연구를 해야 하겠다고 발심했습니다. 하류인 일본에서 출발하였으니 이제 중류인 우리나라의 정토사상, 상류인 중국을 거쳐서 마침내 원천인 인도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원천에 『무량수경』이 놓여있습니다. 산스크리트본(범본) 『무량수경』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가피입니다. 다행히 제가 인도철학과에서 불교를 공부하는 입장이어서 산스크리트를 해독할 수 있다(당시 범어는 인도철학과에서만 가르치고 배웠습니다.)는 것은 무한한 축복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범본 『무량수경』이나 한역 5종을 다함께 살펴보고, 중국, 한국(신라), 그리고 일본까지의 모든 해석들의 전통을 다 재점검하면서 원효든 신란이든 어떤 전통이라도 그 안에서 버릴 것은 다시 버리고(選捨)하고, 선택할 것은 다시 선택하자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것을 저는 '재수용(再受用)'이라 부릅니다.

이 재수용의 과정에서 일본불교의 정토사상은 대단히 깊고 정밀한 사색을 제공합니다. 물론, 그 역시 다 옳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원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옳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옳은 것은 취하여 발전시키고 그른 것은 가차 없이 버려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정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신란의 경우에는 정토불교의 역사에서 양적으로 가장 많은 저술을 남겼고, 질적으로는 가장 독특한 해석을 했습니다.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신란에 백 프로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만, '신란까지(내지신란)' 공부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본의 정토불교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더욱더 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무슨 '민족'이니 '국가'니 하는 것은 개재될 수 없습니다. 불교의 '중생'은 애당초 민족보다, 국민보다 더 폭넓은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이 다섯 번째 의혹에 대한 답변 부분은 한 번 수정한 것입니다. 애초의 글은 너무 우회적이고, 너무 간략했고, 분명한 답이 안 되었다고 느껴서입니다. 좀 더 상세하고도 직접적으로 답변하고자 했습니다.)

3. 전공에 대하여

평생 많은 분들로부터 '도대체 당신 전공이 뭐냐?'라는 질문을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적잖이 당혹스러웠

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대답해 왔던가, 잘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로서도 2년 좀 더 지나면 정년을 해야 하고 ---.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자신의 입장을 한 번은 정리해서 밝히는 것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마침 저 자신의 학문에 대해서 말하는, 이런 흔치 않은 기회가 왔기에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속내를 밝히고자 합니다.

외람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렇다면, 여러스님들,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학자가 아닙니다! 그저, 불자입니다. 신자입니다.

다만, 학문 활동을 통해서 신심을 표현해 왔습니다. 그 길 밖에 달리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학문활동의 세계에서는 자기전공이 있는 것 아닌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공'이라는 말의 정의를 저는 나름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가능성은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전공일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첫 번째 학술저서 『대승경전과 禪』으로 출판한 것이 박사논문입니다. 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어떤 주제라도 그 주제에 대해서 학술지에 논문을 10편 이상 발표한다면, 그 주제는 그 학자의 전공이라 해도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문제는 그런 주제가 제게는 여럿 있다는 점입니다. 한 둘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또 혼란되고 있습니다. 인도철학, 인도불교, 선불교, 한국불교, 일본불교, 정토불교 등.(심지어는 문학까지 공부하고, 글을 썼습니다). 1989년부터 논문을 발표해서 30여 년 동안, 한 해 평균 3편의 논문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문제는 있습니다. '전공'이라 할 때의 '전(專)'이라는 말은 '오롯이'라는 뜻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로서는 전공이 없다고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오래 전에 읽은 한 언어학 책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상기(想起)합니다. 언어학자들은 모국어 말고도 많은 외국어들을 배우고 익힌다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언어학자 김방한 선생님의 책 『한 언어학자의 회상』(민음사)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만, 이런 말입니다.

언어학자가 마지막으로 돌아갈 것은 모국어다.

아무리 많은 외국어를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궁극적으로는 모국어, 즉 김방한 선생님의 경우에는 한국어 연구로 회향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인도철학에서부터 일본불교까지 공부해왔고, 공부할 것입니다. 글을 썼고, 글을 쓸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저에게도 마지막으로 회향할 것은 한국불교가 아닌가 합니다. 그것도 과거의 한국불교에 대한 연구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역시도 '현재와 미래의 한국불교'를 위하여 회향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라면, '미래와 현재의 한국불교'가 저의 연구대상입니다.

그것도 '책 안의 한국불교'만이 아니라, '책 밖의 한국불교'까지 말입니다. 다만, 그를 위해서 참으로 보궐(補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정토불교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정토불교로 회향하려고 합니다. 학문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 2017년 『나무아미타불』을 번역 출판할 무렵, 저에게는 이미 그런 마음이 자라났습니다. (현재까지 정토불교 논문은 21편을 보고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안고 앞으로도 나아가려고 합니다. 특히, 『무량수경』, 원효스님, 그리고 신란스님에게 길을 물으면서 말입니다. 홀로 가면서, 동시에 함께 가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

4. 반야학술상의 의미

이제 '수상강연'을 마치면서 반야학술상이 저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한 말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저는 매일같이 두 명의 적(敵)과 싸우고 있습니다. 한 명은 그 이름이 '욕망'입니다. 이 적은 저에게 더 많은 논문을 쓰라, 더 많은 책을 출판하라고 부추깁니다. 또 한 명의 강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허무'입니다. 이 적은 저에게 '그렇게 하노라고 애써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읽어줄 독자가 없다. 책을 펴내도 읽을 사람이 어차피 없을 터인데 ---. 애쓰지 말라'고 저에게 말합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적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만, 허무는 저 자신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 '조금은 그래도 있다.' 누가 말해주어야 합니다. 힘을 얻습니다.

근래 저는 『출가정신의 전개』(민족사)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500부를 만들었습니다만, 그 중에 3%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완독해 주시는 분이 15분만 된다고 하면, 다음 책을 향해서 계속 행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 속으로는 '반야암에 가기 전까지는 15명이 안 되겠나' 희망했습니다만, 현재 12명의 독자들 이름만 제 책상 앞에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허무'와 싸우는 저에게 '반야학술상'은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반야불교문화연구원장 요산지안스님과 여러분들께 머리숙여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